

#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 조명

이충열\*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Yoon Gil-Young's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Physiology" : Review from an Insider's Viewpoint

Choong Yeol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Yoon Gil-Young(1911-1987) was a frontier of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Physiology(TKMP) who was academically active since mid 1950s until early 1970s. He wrote several important papers and books. Among his writings,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Physiology",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Journal" from June 1966 until March 1967,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contemporary TKMP and showed his academic stanc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This review will evaluate this paper'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KMP in historical context, summari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is understanding of TKMP by analyzing the text, and then based on those information, examine his view on TKMP and TKM. Historically, this paper was written in transition period from the traditional TKM knowledge system to the modernized one. Aim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a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TKMP as a scientific knowledge system like that of the western medicine. Based on his study of Yin-Yang theory and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n Huangdi's Internal Classics, he suggested those theories as methods to observing life phenomena and systematizing the observations. And he regarded these methods as of great value in determ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KM compared to those of western medicine. Through re-reading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he had pride and confidence in the methodology of TKM, and also that he thought in scientizing and modernizing TKM it wa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efficiently put in use the methodology of TKM. It was also found that his view on TKMP and TKM was pro modernization.

Key words : Yoon Gil-You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physiology, methodology, modernize, scientize

### 서 론

玄谷 尹吉榮(1911-1987)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이하 「방법론 연구」)는 1966년 6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大韓漢醫學會報>(대한한의학회지 전신)에 게재되었던 논문이다.<sup>1)</sup> 각주에 이 논문이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4집에 발표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어 최초 경희대학교 논문집에 실렸던 것을 다시 대한한의학회보에 연재 형식으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 연구」는 지금의 한국 한의생리학이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논문으로서 여기에는 현국 윤길영의 학문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논문에서 한의생리학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대상관', '전일개념'과 같은 용어들은 지금도 강의실이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일반적인 한의학 전공자들은 물론이고 한의생리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의생리학 분야는 그동안 한국 한의학 전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시점에서 윤길영의 「방법론 연구」를 다시 읽으면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국 한의생리학의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교신저자 : 이충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ylee@kyungwon.ac.kr, · Tel : 031-750-5419

· 접수 : 2009/07/23 · 수정 : 2009/08/05 · 채택 : 2009/08/05

윤길영의 자제인 윤의섭의 회고에 따르면 윤길영은 27세쯤에 우연히 서점에서 조현영의 <通俗漢醫學原論>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윤길영은 한의학에 매료되어 두문불출 한의학을 공부하였는데 동네에서는 정신이상자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고, 같이 의학 공부를 하던 동료들에게도 ‘漢方狂人’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한다.<sup>2)</sup>

이처럼 윤길영은 한의학계 내의 특정한 사승관계 없이 거의 독학으로 한의학을 공부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의 한의학관이 형성되는 데는 그에게 한의학 입문 동기를 제공했고, 1930년대 동서의학 논쟁과 한의학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현영의 의학관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영을 일부에서는 ‘동서의학 절충파’로 분류하고<sup>3)</sup>, 윤길영도 이 유파에 소속시키고 있다<sup>4)</sup>. 하지만 ‘동서의학 절충’이 이들의 한의학관을 요약하는 명칭으로 타당한 것인지, 범위를 좁혀 윤길영의 한의학관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방생리학 분야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방법론 연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 「방법론 연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방법론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을 생각해 보며, 이를 통해 윤길영이 견지하고 있었던 ‘한방생리학’과 한의학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문

### 1. ‘한방생리학’ 분야의 형성과 「방법론 연구」

‘한방생리학’ 분야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38년 충남의약조합에서 발간한 <漢方醫藥> 제14호에서는 「漢醫學의 生理學」이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볼 수 있다<sup>5)</sup>. 1955년에 발간된 <東洋醫藥> 창간호에는 윤길영이 쓴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sup>6)</sup>과 또 研齋學人<sup>7)</sup>이라는 필명으로 연재가 시작된 「生理學講義」<sup>8)</sup>등 생리학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이

실려있다. 이 글함께 이 잡지에는 내과학, 병리학, 해부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위생학 등의 강의록으로 보이는 글들이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으로 보아 적어도 1938년쯤에는 한의학에서 ‘생리학’이라는 분야가 한의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었고, <東洋醫藥> 창간호가 발간된 1955년에는 1948년에 설립된 東洋大學館이 1952년의 서울한과대학을 거쳐 東洋醫藥大學으로 교명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한 해로서 이미 병리학 등과 함께 ‘한방생리학’ 분야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러나 ‘한방생리학’이 어떤 분야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분명하게 정립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東洋醫藥> 창간호에 실린 생리학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이다. 이 두 글이 같은 호에 함께 실려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글의 저자가 생각하는 ‘한방생리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윤길영은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이라는 글에서 “생리학은 주로 인체의 생리 구조와 제반 생리로 발생하는 제현상을 구명하는 학문으로서 병리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방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이다”<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윤길영이 기본적으로 ‘한방생리학’을 서양의학의 ‘생리학’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윤길영이 보기에 동양의 모든 학문이 과학적으로 현대화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듯이 “(한방)생리학도 완전한 일개 전문학과로 독립된 체계를 갖춘 서적이 없고 해부 실험을 기초로 연마된 금일의 생리학과 같이 정연한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학에는 엄연히 한 줄기 체계가 있고 또 ‘한방생리학’이 “한방의학의 기본 이론으로서 비중이 지대”하므로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연구를 위해서는 ‘한방생리학’에 대한 분과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10)</sup>

그리고 “그 특수한 관점과 이론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현대생리학만을 그대로 접붙일 수 없다.” “수천 년 전래의 그 奧義를 검토하여 과학적 견지에서 재정리”함으로써 “한의학 전체 부분의 중대한 원리를 천명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발달된 현대생리학을 무리가 없이 정당하게 도입함으로써 斯學을 현대화하여 그 진가를 재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학의 미흡한 한 구석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한방생리학’ 연구의 방법과 최종적인 목표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윤길영이 보기에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고할 만한 모델도 없는 실정이었다. 중국에서도 생리학의 중요성을 깨달아 몇 권의 새로운 서적이 나왔지만 대개 현대(서양)생리학을 번역해서 한의학에 집어넣거나 동서의학의 생리학을 서로 대비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唐容川의 <中西匯通醫經精義>나 秦伯未의 <實用中醫學> 生理編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sup>12)</sup>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길영이 생각했던 ‘한방생리학’의 주요 과제는 일차적으로 여러 의서들에 산재되어있는 생리설

1) <大韓漢醫學會報>에 5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에는 오자와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어 이 논문에서는 <大韓漢醫學會報>에 실렸던 논문과 김남희 저, 신생리학 총론, 경희대 한의학과, 1972.에 실려있는 「방법론 연구」 논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었다.

2) 윤의섭, 현곡 선생님의 생애와 인생관, 제3의학 1(1), 제3의학회, 1996. p. 191.

3) 박윤재, 조현영의 동서절충적 의학론, in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아카넷, 2008. pp. 199-221.

4) 김남일, 강연석, 醫學史의 맥락에서 바라본 玄谷 尹吉榮의 학술사상-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외사학회지 21(2), 2008. pp.149-158.,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32] 尹吉榮(1912-1987), 민족의학 신문 제684호, 2008.10.31.

5) 寶文山人, 漢醫學의 生理學, 漢方醫藥 제14호. 1938. pp.13-14.

6)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 東洋醫藥 創刊號. 1955. pp.53-54.

7) 1956년에 발간된 동양의약 제2권1호에는 ‘漢醫學의 一般認識과 나의所感’이라는 글의 필자가 ‘東洋醫學會學術院副院長 研齋學人 韓世靖’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글을 쓴 研齋學人은 한세정 선생으로 짐작된다. 한세정 선생은 이 글 외에도 병리학, 위생학 강의록을 동양의약 잡지에 연재하고 있으며, 또 ‘醫學은 哲學이 아니다’, ‘漢醫學의 純粹性과 나의研究’ 등을 기고하여 이 시기 왕성한 집필활동을 보이고 있다.

8) 研齋學人, 生理學講義, 東洋醫藥 創刊號. 1955. pp 18-20.

9)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 p 53.

10) 尹吉榮, 위의 글, p 53.

11) 尹吉榮, 위의 글, p 53.

12) 尹吉榮, 위의 글, p 53.

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서양의 현대생리학을 도입하여 이것의 과학성을 밝히고 현대화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현대생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었다. 즉, 서양의학의 생리학을 포함해서 동서의학 생리학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한방생리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研齋學人은 「生理學 講義」에서 “한방생리라 함은 漢方臟腑, 氣血經脈, 榮衛, 皮肉, 毫毛, 筋骨, 四末, 七竅 등에 대한 모든 유기적 관련 작용의 理를 말한 것이니, 세포학 중심의 생리가 아니고 氣血學 중심의 생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에 있어서도 소화기계나 호흡기계나, 신경계나 하는 상호 관련이 없는 국부적 분석 생리가 아니고, 인체를 內景, 外形으로 대분하여 상호관련이 있는 전체적 종합생리로 되어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3)</sup> 研齋學人은 ‘한방생리학’을 서양의학의 국부적 분석 생리와 다른 전체적 종합생리로 정의했으며, 생리에 哲理가 섞여있는 것이 ‘한방생리학’이 작용원리까지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哲理가 섞인 한의학 고유의 생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기초한 ‘한방생리학’이라는 윤길영의 생리학관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研齋學人은 한방생리 속에 들어있는 불합리한 ‘他家原理’를 정리하고, 여러 의서들에 흩어져있는 생리설을 정리해서 하나의 학으로 만든 체계적인 생리학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방생리학’ 자체의 체계화나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현대 생리학’과의 ‘相補’나 ‘현대 생리학’에 대한 기여 같은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길영의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은 다음 호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반면 「生理學講義」는 2회분부터 서울한의학사회장 朴性洙로 명의가 변경되어 계속 연재되었다. 그 내용은 제1편 총론에서는 生理의 개념, 三焦, 命門, 經絡으로, 제2편 생리에서는 氣, 血, 五臟(1.心臟, 2.肺臟, 3.脾臟, 4.肝臟, 5.腎臟), 六腑(1.胃腑, 2.膽腑, 3.小腸腑, 4.大腸腑, 5.膀胱腑, 6.三焦腑), 外形(1.皮膚, 2.脈, 이하 자료부족으로 미상) 등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sup>14)</sup> 이것은 앞서 연재학인이 제1편 제1장 생리의 개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방생리를 內景과 外形으로 크게 나누어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런 체계는 동의보감의 편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한방생리학’이라는 분과명은 서양의학의 ‘생리학’에서 빌려온 것이다. ‘한방생리학’은 근현대 시기를 거치면서 한의학의 한 분과로 완전히 정착했다. 이 이전에는 ‘한방생리학’이라는 분과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한의서에 흩어져있는 생리 관련 내용을 뽑아내고 이것에 어떤 체계를 부여하여 정리하는 것은 순전히 이 분과가 형성될 당시의 연구자들에게 책임이

맡겨진 새로운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과거의 도제식 교육과 임상에서 탈피해서 학교 한의학 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연결된 일이기도 했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합리성을 갖대로 한의학을 재정리하는 현대화, 체계화의 과정이었다. 과거 한의학에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지식들은 걸러내고 합리성을 갖춘 지식만으로 새롭게 한의학 지식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통시대 한의학은 여러 분과를 갖춘 현대적 지식체계로 거듭나게 된다.

‘한방생리학’의 형성과정은 실제로 한의학의 현대화, 체계화의 과정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한의학계 내부에 존재했던 ‘한방생리학’에 대한 몇 가지 그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 본 윤길영과 연재학인의 생리학 이해가 대표적인 것이다. 연재학인의 생리학은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內景, 外形 체계의 생리학이었으며, 윤길영의 생리학은 「방법론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황제내경>의 생리 내용을 음양, 오운육기론을 기초로 체계화한 일종의 <내경>생리학이었다. 그리고 윤길영의 생리학은 전통 그대로의 생리학이 아니라 ‘현대 생리학’에 대한 기여를 생각하고 과학을 지향하는 생리학이었다.

「방법론 연구」는 ‘한방생리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에 쓰여져 생리학의 방향과 연구방법을 제시한 의미있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1955년 자신이 쓴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0년의 세월 동안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방법론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

### 1) 「방법론 연구」에 나타난 윤길영의 ‘한방생리학’에 대한 인식

앞서도 언급했듯이 윤길영은 ‘한방생리학’을 서양의학의 생리학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한방생리학’과 서양의학의 생리학은 연구 대상, 연구 목표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모두 인체가 표현하는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현상의 발현에 관여하는 생리 구조 및 기전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만 ‘한방생리학’과 서양의학의 생리학의 차이는 대상을 규정하고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윤길영에게는 서양의학의 생리학과 대비해서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윤길영의 관점에 따르면 서양의학은 17세기경부터 과학적 의학으로 개편되면서 그 당시의 물질을 연구하던 자연과학적 방법을 생명현상 연구에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자연히 대상을 물질로 취급하게 되었고 분석적 방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알아 생명현상을 연구했다. 특히 해부학적 관찰을 중시하고 무생물을 연구하는 물리학적, 화학적 방법으로 인체를 연구했다. 반면에 한의학은 3천년 전 당시의 유일한 방법론이었던 음양론을 인체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전체성적 관찰이 가능했고 생명을 물질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했다.<sup>15)</sup>

13) 研齋學人. 위의 글, p 18.

14) 朴性洙. 生理學講義. 東洋醫藥 1(2):11-14, 1955., 生理學講義(第三講). 東洋醫藥 1(3):9-13, 1955., 生理學講義(第四講). 東洋醫藥 1(4):9-13, 1955., 生理學講義(第五講). 東洋醫藥 2(1):13-15, 1956. 두 번째 생리학 강의록부터는 박성수 서울한의학사회장이 기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글의 내용이 첫 번째 강의록과 연결되고 있고 문체가 비슷하며, 또한 당시에는 이러한 대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글들도 모두 研齋學人 韓世靖 선생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15) 尹吉榮. 과학화의 길, in 김완희 저, 동의학원리론 후편, 경희대 한의대, 1988. p.186.

이런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있어서의 방법론 차이는 두 의학의 생리학에서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

우선 윤길영은 서양의학의 생리학은 일종의 일반 생리학이고, '한방생리학'은 개체 생리학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양의학의 생리학이 일반생리학이라고 본 이유는 서양의학의 생리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대체로 일반성을 구명하고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대상을 연구하는 데는 일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양의학은 여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생리나 일반병리도 근본 목적은 개개의 생리와 병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인식하는 방법이 서양의학의 생리학에는 없다. 반면에 '한방생리학'이나 병리학은 서양의학의 생리학이나 병리학에 비하면 형편없이 유치하지만 그 속에는 개개의 생리나 병리를 연구하는 방법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감기만 해도 한방에는 절후에 따라, 체질에 따라, 증후에 따라 약물처방의 작성과 선택 방법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이를 기초로 의사가 약제를 투여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양의학의 생리학은 대상의 일반성을 인식하는데 능한 반면 '한방생리학'은 개체의 특수성을 인식하는데 능하다.<sup>16)</sup>

또 서양의학의 생리학은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며 기관이 모여 생체가 구성된다는 기계학적 관념에 의한 조립론에 입각하여 해부학적 소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분석적이고 환원론적인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성에 의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생명현상에 손상을 입히고 마침내 생명을 파괴하며 정신은 깊숙이 유폐되고 만다. 하지만 '한방생리학'은 고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체성적 관찰을 중시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서양의학의 생리학은 물리학적, 화학적 방법으로 생명현상에 접근함으로써 자연히 인체라고 하는 대상을 물질로 규정하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한방생리학'에서는 음양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생명현상에 접근함으로써 생명을 생명답게 연구하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sup>18)</sup>

이처럼 윤길영은 서양의학의 생리학과 '한방생리학'을 일반생리학 대 개체 생리학, 분석성 관찰 대 전체성적 관찰, 물리화학적 방법론 대 음양론적 방법론으로 대비시켜 '한방생리학'이 가진 장점을 분석하고 있다.

윤길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의학의 생리학과 '한방생리학'이 서로 '相補'적인 것으로서 이해했다. 동서의학의 생리학이 서로 '相補'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방법론 연구」에서는 이것에 대해 "실지 임상의학에 응용되는 생리학은 해부학적 관찰사항으로 축조된 지식만으로는 미흡하니 전체성적 관찰사항으로 축조된 지식도 필요하고 무생물을 다루는 물리학과 화학으로 분석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생명현상을 생명으로 분석관찰한 지식도 아쉽고 일반생리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개체를 다룰 수 있는 생리학적 방법도 있어야 할 것이다"<sup>19)</sup>라고 말하고 있다.

'한방생리학'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방생리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방법론 연구」에는 '한방생리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로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양방의 생리학적 체계에서 비판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로 '한방생리학'의 기초이론이 음양오운육기론으로 되었다 하여 상념적 추리에 빠져서 대상관찰을 떠난 음양오행의 관념적 전개에 고희하는 것이고, 셋째로 양방학설을 억지로 부회시키려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방에서 성취한 지식을 무조건 배척하며 현대과학방법의 도입을 기피하고 과거만을 묵수하려는 것이다"<sup>20)</sup>라고 했다. 또 "서의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한의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또는 다른 특수과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그것이 생체를 연구하는데 정확한 지식이라면 모두 필요한 것이다"<sup>21)</sup>라고 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윤길영이 생각했던 '한방생리학' 연구의 바람직한 자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방생리학'의 방법론과 서의생리학의 방법론의 차이를 잘 알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방생리학'이 서양의학 생리학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양방의 생리학적 체계에서 '한방생리학'을 비판하고 연구하거나, 양방학설을 억지로 '한방생리학'에 부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방생리학'이 음양, 오운육기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연구가 관념적인 방향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양오행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체계세우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한방생리학' 연구에서 양방 지식을 무조건 배척하고 현대 과학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기피하며 과거의 것만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든 생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면 '한방생리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윤길영의 인식은 전통적인 한의학을 묵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한의학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황제내경>을 기초로 한 '한방생리학'의 방법론 연구

「방법론 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 논문이 <황제내경>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법론 연구」는 <내경>에 흠여져있는 음양원리들을 뽑아 이것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생리,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로 채용하고 있다. 또 윤길영은 <내경. 소문>의 운기편을 중시했으며 이 운기 7편의 내용을 연구하여 오운육기론적 생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음양론은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모든 학술 사상·과학기술을 포함하여-을 관통하는 일종의 인식틀로서 옛 사람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썼던 안경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음

16) 尹吉榮, 위의 글, pp 188-189.

17)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大韓漢醫學會, 1966. pp 3-4.

18) 尹吉榮, 위의 논문, pp 3-4.

19)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20)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21)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양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면 시대별로, 학문 분야별로 적용되었던 음양을 모두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길영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양을 지나치게 넓게, 또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윤길영은 의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음양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으며, '한의학의 원론' 또는 '한의학의 고전'에 해당하는 <황제내경>에서 '한방생리학'과 관련된 음양원리들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음양론적 생리체계를 수립하려고 했다. <황제내경>의 연구를 통해 찾아낸 '陽化氣陰成形', '陰靜陽躁', '陽主熱陰主寒', '陰平陽秘精神乃治'와 같은 음양원리들은 윤길영의 음양론적 생리체계 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2)</sup>

음양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윤길영의 생각은 윤길영의 저서인 <東醫臨床方劑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東醫臨床方劑學> 上卷 辨證要綱에는 “음양은 多義의므로 사용하므로, 初學者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지칭하는 용어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다. 음양은 1. 陰陽代謝의 兩勢力을 지칭하는 음양, 2. 상대적으로 지칭하는 음양, 3. 經絡의 음양, 4. 部域의 음양, 5. 生命源의 음양으로 五種으로 분별된다.”<sup>23)</sup>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음양에 대한 지나친 천착을 경계하고, 또 의학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관념적으로 음양을 이해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래서 의학에서의 음양의 용법을 대략 5종으로 요약하고 이 범위 내에서 음양을 생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윤길영은 철저하게 <내경>의 음양론을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윤길영이 볼 때 음양론은 “첫째로 대상을 생명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연역적 또는 귀납적 관찰 사항을 생명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 셋째로 물리학적 화학적 관찰을 간이하게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 넷째로 정신문제를 유리시키지 않고 취급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물을 본질로 한다든지 심을 본질로 한다든지 관념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장 경험을 정직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sup>24)</sup>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즉, 음양론은 그 자체로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생명현상을 생명답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윤길영의 윤기론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윤길영의 또 다른 저서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에는 <내경> 윤기론을 기초로 연구한 和劑作成效法이 실려있다.<sup>25)</sup> 「방법론 연구」에서도 윤기론은 생리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윤기론은 본래 “천체운동에 따르는 기상의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sup>26)</sup>이지만 인체가 일종의 소우주로 대우주의 운행법칙과 共範律을 갖는 존재이므로 윤기론은 인체 생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다.<sup>27)</sup>

또 윤길영이 한의학적 대상관을 풀어나가는 단초로 삼았던 “本氣位也”도 윤기론 중 하나인 <黃帝內經 素問 氣交變大論>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방법론 연구」에서는 五運을 春, 夏, 長夏, 秋, 冬의 五時의 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본다. 春, 夏, 長夏, 秋, 冬의 각 계절에는 자연에 生, 長, 化, 收, 藏의 현상이 있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각각 生氣(발생력), 長氣(추진력), 化氣(통합력), 收氣(억제력), 藏氣(침정력)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목, 화, 토, 금, 수로 표시한 것이 오운이라고 설명했다.<sup>28)</sup> 그리고 육기는 각 계절의 기후현상을 요약한 것으로 春에는 風, 夏에는 熱火, 長夏에는 濕, 秋에는 燥, 冬에는 寒을 발한다. 이 중 熱과 火는 同類이나 本과 標가 달라 熱은 本이고 火는 熱에 따라 말하는 風濕燥寒과 같이 相隨하는 현상으로 보아 熱을 君火, 火를 相火라 하며, 이 風寒暑濕燥火를 기후의 기본 현상으로 본 것이 육기라고 했다.<sup>29)</sup>

윤길영은 本氣와 位의 관계를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확대하고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오운과 육기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오운의 계기는 春, 夏, 長夏, 秋, 冬의 시간이며 이에 따른 변화는 生長化收藏이라는 공간에서의 形의 盛衰로 관찰된다. 반면에 육기는 상하, 좌우, 전후 六승의 공간이 그 계기가 되며 이것은 각 계절의 특징적인 기후현상인 風寒暑濕燥火 육기라는 시간에 따른 氣의 消長 변화로 관찰된다. 이 같이 시공간의 틀 속에서 오운과 육기가 상합하여 만물이 화생한다는 관점에서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윤기론이라고 정의했다.<sup>30)</sup>

이에 따라 “한방생리학에서는 천문학적 개념으로 우주력의 기본적 분석개념인 발생력, 추진력, 통합력, 억제력, 침정력의 오운을 도입하여 생명력의 기초적 분석개념으로 하고 이것을 오장과 결부시켜 오운적 오장개념을 형성했으며, 이 오운적 오장의 발생기능, 추진기능, 통합기능, 억제기능, 침정기능으로 생명현상을 분석했다”<sup>31)</sup>고 보았다. 따라서 이것으로 기본적인 생명현상을 분석하면 “발생력은 운동을 일으키고, 추진력은 생명활동을 추진시키고, 통합력은 영양을 主司하고, 억제력은 호흡을 主司하고, 침정력에 의해 배설과 생식을 한다.”<sup>32)</sup> 이 같은 분석은 단일 세포체 생물에서도 가능하며, 인체와 같이 복잡하게 분화된 생명체의 모든 기능도 다 이 단일 세포체 생물에서 관찰한 오종기능이 분화 발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학의 오장은 이 오종기능 분화의 대표적 장기가 된다.<sup>33)</sup>

즉, 오운은 인체 전체 차원에서 생명을 주체로 생명력을 오종력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이러한 오종력- 즉, 오종기능-은 인체 안에서 계열적 분화를 일으키며 오종기능에 따른 장기나 조직, 기관의 계열적 분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의 오장은 오종기능을 대표하는 장기가 되어 해부학적 오장의 차원을 벗어나 오운적 오장의 개념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의학의 오장이 일종의 생명력을 분석하는 기초개념이 되는 것이다.<sup>34)</sup>

22)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p 8-9, 1966년 7월호, pp 15-17.

23) 윤길영, 東醫臨床方劑學, 명보출판사, 1985. p 17.

24) 윤길영, 物理化學의 人體生理와 陰陽論의 思考, in 김완희 저, 동의학 원리론 후편, p 218.

25)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성보사, 1983. pp 144-175.

26)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7.

27)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8.

28)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7.

29)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7.

30)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8.

31)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p 16.

32)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p 17.

33)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p 18.

34)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9월호, pp 18-21.

그리고 윤길영은 오종기능을 대표하는 오장 상호간에는 상생상극의 협조와 억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관계 속에서 오장 각각은 인체전체가 지향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고, 이 과정에서 인체의 모든 생리 현상이 발현한다고 보았다.<sup>35)</sup>

여기서 육기는 인체 내외의 환경을 구성하고 인체 오장의 생리활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기후로서의 육기는 풍도(풍,화), 온도(한,열), 습도(조,습)의 측면에서 생물의 환경 조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환경 조건은 때로는 인체 생리를 도와 호조를 띠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체 생리를 해쳐 병리현상을 발하게도 한다. 이 같은 육기 관계는 신체 환경 내에서도 존재하는데 온도(한, 열)는 체온, 풍도(풍,화)는 동요의 강약으로 운동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고, 습도(조,습)는 인체의 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체 내부의 온도, 풍도, 습도 변화는 내부기능의 차질로도 일어나지만 외부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sup>36)</sup>

이처럼 윤길영은 <황제내경> 운기론을 기초로 오운과 육기가 시공간적으로 결합한 체계, 인체에서는 오장시스템과 이를 둘러싼 인체 내외의 환경이 시공간적으로 결합한 오장 중심의 생리체계를 구성했다.

「방법론 연구」에서는 음양, 오운육기를 한의학에서 전일 생명을 중심으로 한 생명현상의 전체성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고, 이 같은 관찰 결과를 생명력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체계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경>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3) 「對象觀」과 「本氣位也」를 통해 체계화한 「한방생리학」의 방법론 「방법론 연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윤길영은 「한방생리학」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되고 또 대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그 학문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능하게 되고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법론은 동서 생리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장단점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했다.

윤길영은 방법론 연구를 「대상관」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했다. 윤길영이 생각하기에 「대상관」은 대상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 방법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법론을 취하느냐에 의해 대상이 규정된다고 보았다.<sup>37)</sup> 서양의학의 생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물리화학적 방법론은 인체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내는 생명현상을 일종의 물질적 속성으로 전락시키고, 분석성에 매몰되게 만들어 정신현상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물질에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며 생명의 전체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sup>38)</sup> 반면 「한방생리학」은 음양론에 입각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체계지움으로써 분석성에 빠져 생명의 전일성을 잃지 않게 만들며 생명을 생명답게 인식하게 만든다.<sup>39)</sup> 음양론은 생명현상을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과 물질의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대상관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고 출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은 방법론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길영은 한의학의 대상관을 음양론적 대상관으로 규정했다. 음양론적 대상관에 의해 일원적 본체로서의 전일과 음양은 一而二이요 二而一인 관계로 설정된다.<sup>40)</sup> 그렇다면 음양론적 대상관 아래에서 전일과 음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이것을 풀어 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本氣位也」이다.

전일개념이 조화하는 일원적 본체는 본래 어느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길영은 당시 場이론을 바탕으로 「本氣位也」를 「本氣는 位也」, 곧 「에너지는 場이다」로 해석하고 이것을 대상으로서의 일원적 본체를 규정하는 음양형식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일원적 본체는 本氣와 位로 분화되는데, 「本氣는 양이고, 位는 음」이며, 이는 다시 「본체의 운동상태에 따라 形으로 또는 氣로 발현하고, 形은 구조로 氣는 기능으로 관찰」된다. 여기서 形-氣, 구조-기능 관찰에 이르는 과정은 「陽化氣, 陰成形」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sup>41)</sup>

그리고 本氣와 位의 관계는 다시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전화되고, 음양기가 시공간 형식 안에서 오운과 육기로 분화 발전하며 이 오운과 육기는 시, 공간의 형식으로 서로 상합한다.<sup>42)</sup>

의학에서 음양론적 대상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가?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의학은 대상을 생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윤길영은 「기능과 구조는 생명의 양면성으로 기능은 양이고 구조는 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를 나타내는 물질적 육체는 음이고 기능의 정화인 정신은 양으로 육신과 정신은 二而一이요 一而二인 관계로 인식하게 되므로 「인간 개체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으로 관찰되어지는 전일생명현상인 생물」이라는 대상관을 수립하게 된다」고 정리했다.<sup>43)</sup> 그리고 음양론적 대상관을 통해 관찰된 생명현상은 각각 음양적 생리체계, 시공간의 형식에 따른 오운과 육기의 생리체계로 정리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윤길영은 「방법론 연구」에서 「대상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방생리학」에서는 대상을 생명으로 규정하고 음양론적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한방생리학」에서의 생명현상 관찰은 생명력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동태적 평형이라는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바라보며, 그 관찰 결과는 인체 내에서의 오종기능 분화와 이들 사이의 평

38) 윤길영, 한의학의 기본 사고방식, in 김환희 저, 동의학원리론 후편, pp 180-184.

39) 윤길영, 위의 글, p 84.

40)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p 5-6.

41)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 6.

42)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p 17.

43)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 6.

35)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p 18, 1966년 9월호, p 21.

36)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pp 15-16.

37)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p 4-6.

형 관계로 인식되고 또 이 기능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체 내의 환경으로서 육기적 현상으로 인식된다고 제시했다.

이것은 <황제내경>에서 시작되어 수천 년간 축적된 전통적인 한의학의 생리설을 음양, 오운육기론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그 방법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한의생리학이 현대적 지식체계로 전환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3. 「방법론 연구」에 나타난 윤길영의 한의학관

위의 모든 논의를 종합할 때 「방법론 연구」에 나타나 있는 윤길영의 한의학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었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결국 윤길영이 견지했던 한의학에 대한 관점이나 의학에 관한 담론으로서 의학론이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윤길영이 한의학을 바라보았던 관점이 조현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것은 두 사람의 글 속에서도 그 유사성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조현영은 「동서의학의 비교 비판의 필요」라는 글에서 현대의학의 장점은 찬양해야 하지만 단점은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충하는 방법은 동양의학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4)</sup> 이것은 동서 생리학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 두 생리학의 장점이 상호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방법론 연구」의 결론<sup>45)</sup>과 많이 닮아 있다.

박윤재와 김남일은 한의학이 주체가 되면서도 서양의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의학적 입장을 ‘折衷’으로 규정하고 조현영의 위와 같은 의학관을 “동서의학 절충의 시도”, 또는 ‘동서절충적 의학론’으로 부르고 있다.<sup>46)</sup> 특히 김남일 등은 윤길영의 「방법론 연구」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면서 윤길영의 생리학적 입장을 “동서의학의 절충론적 입장이며 그 근간을 동서의학 비교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47)</sup>

折衷은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折中)”,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물이나 견해 따위에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좋은 점을 골라 뽑아 알맞게 조화시키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한의학이 주체가 되어 서양의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것을 과연 ‘절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자면 ‘절충’은 “동서의학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의학을 수립하려는 의학적 시도”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절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중국의학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匯通’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주로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唐容川이나 張錫純의 ‘衷中參西’의 학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회통’사조는 잘못 이

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통’사조가 중서의학 사이의 이론적, 임상적 ‘溝通’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회통’ 사조를 추종했던 의가들은 중서의학의 醫理가 상동하고 상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회통’사조의 진정한 목표는 그 당시 인정받고 있었던 서의에 기대어 중의를 인정받게 하는데 있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全般西化 사상에 맞서기 위해 나타났던 국수주의 사상과 서로 통하는 것이었다. 국수주의 사상은 당시 “西學을 빌어 中學을 증명(藉西學以證明中學)”하고 전통 中學 중에서 西學의 원형을 찾아 中學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즉, 중의학계에서 유행했던 ‘회통’사조는 국수주의가 의학계에 나타났던 한 형식이었던 것이다.<sup>48)</sup>

따라서 ‘절충’과 ‘회통’의 차이점은 ‘절충’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섞어 ‘신의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던 반면, 회통은 당시 과학적 의학으로서 세력을 얻고 있었던 서의학과 상동점이나 상통점을 찾아 한의학이 현대에도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의학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두 용어를 구분하는 관건은 이들의 최종 목표가 ‘신의학’ 건설에 있는가 아니면 한의학 보존에 있는가인 셈이다.

윤길영이 과연 동서의학 절충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 「방법론 연구」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분명한 의견 표시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서의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한의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또는 다른 특수과학에서 발견된 지식이든 그것이 생체를 연구하는데 정확한 지식이라면 모두 필요한 것”<sup>49)</sup>이라고 하여 서양의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을 한의학에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에 과학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방생리학’을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 이상의 언급은 「방법론 연구」에서 발견할 수 없다.

윤길영이 쓴 다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찾아 볼 수 있을까? 윤길영은 「과학화의 길」이라는 글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서의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있지 않다. 한의학을 서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한의학을 서의학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과학적 방법을 부인하거나 서의학의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한의학의 과학화에는 서의학의 지식이 물론 필요하나 서의학적 대상관에 의한 분석적 방법체계가 불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술어의 현대화, 술어의 확립, 술어 내용의 구명 등도 필요하고, 한의학적 치료 실증의 통계적 방법, 한의학의 원리 및 방법론의 과학적 검토, 오진의 시정, 불순물의 제거, 음양론의 과학적 연구와 체계의 재정비를 위시하여 한의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구명하여 내물적인 과학성을 외면화하고 상징적 표현을 묘사적 표현으로 바꾸며 범주적 학리를 과학적 이론으로 전개하여 서의학과

44) 조현영, 동서의학의 비교 비판의 필요, in 조현영 외 지음,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소나무, 1997, p 87.

45)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46) 박윤재, 조현영의 동서절충적 의학론, in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pp. 199-221., 김남일, 의서와 학파의 형성, in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아카넷, 2008, pp 157-198.

47) 김남일, 강연석, 위의 논문, p 152.,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 32] 尹吉榮(1912-1987), 민족의학 신문 제684호, 2008.10.31.

48) 李經緯, 張志斌 主編, 中醫學思想史, 湖南教育出版社, 2006, p 651.

49)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연결시키어 한의학적 대상관에 따르는 과학적 의학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sup>50)</sup>

이 글을 읽다 보면 ‘절충’, ‘회통’과 같은 용어가 뭔가 윤길영의 생각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절충’은 사실 서로 다른 것을 적당히 섞어 조화시킨다는 뉘앙스가 강한 용어다. 과연 윤길영의 한의학에 대한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윤길영은 한의학적 방법론에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한의학의 현대화나 과학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양의학 지식과 자연과학 지식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한의학의 방법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윤길영이 ‘절충’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 「방법론 연구」의 결론 부분에는 ‘한방생리학’과 서의생리학이 ‘相補’함으로써 정확한 생명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윤길영의 생각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sup>51)</sup> 하지만 이것도 ‘한방생리학’과 서양의학 생리학의 ‘절충’ 내지 융합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둘의 장점을 합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회통’도 적절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윤길영은 한의학을 보존할 목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동점이나 상통점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현영은 어느 정도 ‘절충’으로 볼 수 있는 의학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영은 「신의학의 발전과 한의학의 금후」라는 글에서 “새 시대의 동양적 의학은 종래의 한의학과는 다소 다를 것이고 정(한의학), 반(양의학), 합(신 종합 치료의학)의 법칙에 의해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동양학적으로 말하자면 양(한의학), 음(양의학), 음양조화(신의학)으로 교역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신의학의 수립에 있어 한의학이 그 주류, 주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의학의 의학방법이 종합적이고, 치료가 자연치료에 주력하고 있는 등 미래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의학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학이 미래 신의학의 주류, 주체가 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적, 과학적 방법이 많이 채택되어 종래의 한의학과는 달라지게 될 것”<sup>52)</sup>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신의학’의 탄생을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본 것이다.

윤길영의 한의학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의학을 현대화, 과학화해야 한다는 의지이다. 「방법론 연구」의 서론에서 윤길영은 “내경에 산재되어 있는 생리학설을 정리하여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을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그 과학성을 밝힘으로써 생명현상을 생명으로서 분석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확립하고자”<sup>53)</sup> 한다고 논문 전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토’, ‘과학성을 밝힘’, ‘과학적 방법을 확립’이라는 구절이 잇달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윤길영의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윤길영이 사용했던 현대화, 과학화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대화 또는 근대화로도 번역되는 modernization은 본래 합리주의, 실증주의,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 되는 ‘근(현)대성(modernity)’ 개념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현대화는 한의학을 합리적인 지식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 한의학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교적, 주술적 치료법들과 같은 비합리적인(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론적 백그라운드 없는 민간요법들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과학화, 체계화, 표준화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한의학 지식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화는 현대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과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科學(science)은 본래 “分科之學”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용어로 최초에는 “합리적인 지식체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54)</sup> 그러므로 동서의학 논쟁에서도 대부분의 한의계 인사들이 이 같은 넓은 의미의 과학 개념을 이용하여 “한의학도 과학이다”, 또는 “한의학에도 과학성이 있다”고 대응했다. 넓은 의미의 과학 개념을 적용한다면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한의학이 이미 과학이므로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더 설득력있게 된다. 하지만 과학을 자연과학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면 한의학의 과학화는 일종의 자연과학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 현대화와 비교해서 훨씬 좁고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경우 과학화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한의학 연구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현상 설명을 의미한다.

윤길영에게 과학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윤길영은 「동의학의 연구방향」이라는 글에서 과학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윤길영은 한의학이 비과학이라는 비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한다. 첫째는, 넓은 의미의 과학 개념을 적용할 때는 한의학도 확실히 과학적 의학에 속한다는 것이다.<sup>55)</sup>

둘째로, 좁은 의미의 자연과학 개념을 한의학에 적용할 때는 이 문제가 약간 복잡해진다. 윤길영은 먼저 서양의학도 순수한 자연과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유로 의학에 본래적으로 순수 자연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서양의학이 자연과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인식’의 영역에 한정될 뿐 일종의 응용과학으로서 치료라든가 하는 ‘실천’면에서는 자연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이라는 것이 본질상 결코 순수한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학을 비과학이라고 공격할 때도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6)</sup> 다시 말해 “동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비난은 의학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과학적이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현대적 입장에 있어서 정의하는 한

50) 尹吉榮, 과학화의 길, in 김완희 저, 동의학원리론 후편, p 192.

51)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p 15.

52) 조현영, 신의학의 발전과 한의학의 금후, in 조현영 외 지음,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p 228.

53) 尹吉榮, 위의 논문,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p 4.

54) 김성근, 일본의 메이지 사상계와 ‘과학’이라는 용어의 성립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25(2), 한국과학사학회, 2003, p 133.

55) 윤길영, 東醫學의 研究方向,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대구한의대, 1982, p 208.

56)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09.



당연한 것이지만 의학은 결코 자연과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다방면을 갖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같은) 동의학에 대한 비난은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57)</sup>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윤길영은 또 “동의학을 비과학이라고 말해 온 것은 현대과학이 아직 충분히 이를 검토해 보지 않은 탓도 있겠으며, 또한 현대과학 그 자체의 진보가 불완전하여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언젠가는 동의학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점차 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sup>58)</sup>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을 비과학으로 보는 데는 한의학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길영은 한의학의 복잡성과 잡다성을 이 문제의 근원으로 거론한다. 한의학에는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예술적 기제가 의학 기술과 함께 混雜되어 있”어 이것이 한의학을 “더욱 더 비과학적, 비현대적, 비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sup>59)</sup>

그러나 “동의학의 비과학성이란 (단지 동의학이) 현대과학화하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동의학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과학성은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의학으로서의 올바른 대상관을 현대의학에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학이 비과학이니 철학적이니 (비판)하는 것은 동의학의 원리와 이 이론을 현대적 술어로 설명하고 현대의학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의학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의학은 자연과학과 같이 그 대상을 물질에 두지 않고 의학의 본질인 생명을 가진 생명체(생물질)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했다.<sup>60)</sup>

이런 맥락에서 윤길영은 ‘동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연구 주제가 한의학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측면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동의학의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동의학 그 자체의 독자성, 특이성, 특수성<sup>61)</sup>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것은 현대의학 즉, 서구 사람들에 의해 발달된 의학과 다른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들은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相違, 생활방식의 相違에서 생기는 특수성에서 최대의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서구와 다른 사고방식의 입장에서 원리나 이론이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sup>62)</sup>하다. 예를 들어 “동의학의 해부가 현대의학의 해부학과는 달리 기능적 치료적 효과를 기초로 해서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원리, 근거를 천명하는 것이야말로 동의학의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sup>63)</sup>다. “음양허실, 표리내외와 같은 근본적인 것이 있고, 증의 주객본말이나 병증의 용어인 水毒, 瘀血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체계지우는 것과 중요치료에 있어서도 汗

를 吐를 下를 和 四法의 해명, 正治를 逆治를 正證, 異證과 같은 법칙을 구명하는 것이 동의학 과학화의 과제<sup>64)</sup>가 된다.

둘째, 본래 과학적 연구의 최대 방법은 분석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분석이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동의학의 특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동의학의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동의학으로서 구체적인 형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과학적 처치를 추가하는 것<sup>65)</sup>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을 연구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한국인에 대해 연구”해야지 “화학적으로 원소에 까지 분해해 버린다면 이미 한국인으로서의 특수성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동의학의 과학적 연구에는 문제의 선정과 연구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sup>66)</sup>

이렇게 본다면 윤길영이 말하는 과학화는 약간은 제한적인 것이다. 윤길영은 일단 좁은 의미의 과학개념을 한의학의 과학화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의학이 과학적 의학 체계가 되어야하고 이런 맥락에서 과학화가 필요하지만 좁은 의미의 과학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한의학 특유의 관점과 특성을 잃는데 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윤길영이 말하는 과학화는 현대화의 일부분 또는 현대화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이것은 위에 인용한 윤길영의 「과학화의 길」이라는 글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 속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화 내용과 방법 중에는 현대화 개념으로 포섭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 더 많다.

윤길영의 한의학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하는 것은 근현대 시기 한국 한의학의 흐름을 분석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근현대 시기 한의학 연구와 임상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잠정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윤길영의 한의학관을 규정하는 용어로서 적어도 ‘절충’, ‘회통’보다는 ‘현대화’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결론

지금까지 「방법론 연구」 다시 읽기를 시도해 보았다. 윤길영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큰 흐름을 이끌었던 분이다. 그의 한의학관은 조헌영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길영은 1930년대 동서의학 논쟁에서 형성되었던 한의학의 현대화 흐름을 1960년대까지 이어나간 한의학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윤길영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논문이며 지금의 한의생리학이 존재하게끔 기반을 닦은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방법론 연구」를 다시 읽으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윤

57)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1.

58)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07.

59)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0.

60)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p 211-212. 인용문 속에 들어 있는 ( )안의 내용들은 논문 저자가 전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61)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5.

62)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5.

63)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6.

64)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6.

65)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8.

66) 윤길영, 위의 글, in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p 218.

길영의 한의학 이론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었다. 윤길영이 볼 때 서양의학과 비교해서 한의학의 특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 이론 내지 방법론이었다.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는 한의학의 현대화나 과학화는 결국 한의학의 방법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같은 이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뜻밖에도 한의학 임상에서 거두고 있는 뛰어난 치료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윤길영은 임상에서 거두는 치료효과가 한의학 이론에서 나온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는 한의학 이론을 배제한 매우 좁은 의미의 과학화가 한의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에 한의학 이론으로 설명하던 침구와 한약의 치료 효과를 과학적 설명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실 연구와 임상에서의 EBM(Evidence based Medicine)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임상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교묘하게 결합한 일종의 잡종의학(Hybrid Medicine)이 성행하고 있다. 한의학 이론이 한의학 연구와 임상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 이론연구와 임상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것은 한의학의 서양의학화(보완대체의학화), 한의학의 중의화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흐름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동서의학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했던 「방법론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윤길영의 견해에 따르면 한의학의 서양의학화는 결국 한의사, 한의학 연구자들이 한의학 방법론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다.

요즘 한의사들이 동서의학 협진이 아니면 동서의학 일원화를 입에 올리지만 이 또한 서양의학의 카운터 파트로서 한의학이라는 한 축이 분명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의학의 방법론을 제대로 이해해서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서양의학과의 '相補'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법론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계승해야 할 한의생리학 전공자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9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참고문헌

1.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6월호, 大韓漢醫學會, 1966.
2.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2).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7월호, 大韓漢醫學會, 1966.
3.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3).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8월호, 大韓漢醫學會, 1966.
4.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4). 大韓漢醫學會報 1966년 9월호, 大韓漢醫學會, 1966.
5.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完). 大韓漢醫學會報 1967년 3월호, 大韓漢醫學會, 1967.
6. 윤의섭. 제3의학 1(1) - 현국 선생님의 생애와 인생관, 제3의학회, 1996.
7.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 박윤재, 조현영의 동서절충적 의학론. 서울, 아카넷, pp 199-221, 2008.
8. 김남일, 강연석. 醫學史的 맥락에서 바라본 玄谷 尹吉榮의 학술사상-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1(2):149-158, 2008.
9.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32 - 尹吉榮(1912-1987). 민족의학 신문 제684호, 2008.10.31.
10. 寶文山人. 漢醫學의 生理學. 漢方醫藥, 14: 13-14, 1938.
11. 尹吉榮. 漢方生理學의 理論과 方法. 東洋醫藥 創刊號, 서울, pp 53-54, 1955.
12. 研齋學人. 生理學講義. 東洋醫藥 創刊號, 서울, pp 18-20, 1955.
13. 朴性洙. 生理學講義. 東洋醫藥, 1(2):11-14, 1955.
14. 朴性洙. 生理學講義(第三講). 東洋醫藥, 1(3):9-13, 1955.
15. 朴性洙. 生理學講義(第四講). 東洋醫藥, 1(4):9-13, 1955.
16. 朴性洙. 生理學講義(第五講). 東洋醫藥, 2(1):13-15, 1956.
17. 김완희. 동의학원리론 후편 - 尹吉榮 과학화의 길. 서울, 경희대 한의대, pp 185-191, 1988.
18. 윤길영. 東醫臨床方劑學. 명보출판사, 1985.
19. 김완희. 동의학원리론 후편 - 윤길영, 物理化學의 人體生理와 陰陽論의 思考. 서울, 경희대 한의대, pp 204-218, 1988.
20.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21. 김완희. 동의학원리론 후편 - 윤길영, 한의학의 기본 사고방식. 서울, 경희대 한의대, pp164-184, 1988.
22. 조현영 외 지음.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 조현영, 동서의학의 비교 비판의 필요. 서울, 소나무, pp 85-101, 1997.
23.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 김남일, 의서와 학과의 형성. 서울, 아카넷, pp 157-198, 2008.
24. 李經緯, 張志斌. 주편. 中醫學思想史. 중국, 湖南教育出版社, 2006.
25. 조현영 외 지음.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 조현영, 신의학의 발전과 한의학의 금후. 서울, 소나무, pp 225-229, 1997.
26. 김성근. 일본의 메이지 사상계와 '과학'이라는 용어의 성립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25(2):131-146, 2003.
27. 윤길영, 김완희, 양기상 공저. 동의학원리론 - 윤길영, 東醫學의 研究方向. 대구한의대, pp 207-223, 1982.